

양석균 CE컨설팅 대표이사 “문제, 진단부터 해소까지 지속적 컨설팅 보장”

“지식산업시대에는 중소기업들의 기술경쟁력 못지않게 전문 경영기법을 익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도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그를 통해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는 제 역할에 보람을 느낍니다.”

지난해 중소기업청에서 주최한 ‘대한민국 컨설팅 혁신대전’에서 최우수 컨설턴트로 선정, 대통령상을 수상한 양석균(56) CE컨설팅 대표는 대한민국 기업의 성장·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싶다는 이같이 소회를 밝혔다.

양 대표는 지난 2003년부터 공무원, 대기업·중소기업 임직원 등 3,000여명에게 HR(인간관계)를 중시해 종업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관리기술에 관한 강의를 통해 명강사로서 이름을 날렸으며, 200여개 기업을 성공적으로 컨설팅한 경영지도사로도 유명하다.

특히 지난해에는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개최, 주관한 ‘학습조직 중소기업 경영성과 전국 경

진대회’에서 CE컨설팅이 컨설팅한 2개의 중소기업이 금상, 은상을 수상해 화제가 됐다. 컨설팅 지도를 통해 우수한 경영성과를 올린 중소기업에게 포상하는 이 대회에서 CE컨설팅의 고객사인 (주)디에스피와 (주)진미식품이 지역영선을 거쳐 출전한 전국 18개 중소기업 중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5만여 사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부천에 위치한 CE컨설팅(ceconsulting.co.kr ☎ 032-328-9340)은 2001년 설립된 이래 경영컨설팅, HR컨설팅, 인증컨설팅, 정부지원사업 컨설팅 등을 사업영역으로 하고 있다. CE컨설팅은 조직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직경영 전반에 걸친 문제점, 애로사항 등을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해 줄 수

Tip on him

- ▶1952년 부천 생
- ▶좌우명 감사하며 살자
- ▶취미 골프, 스키, 등산
- ▶저서 고객유형별 맞춤형 경쟁력이다, 평가에서 보상까지 한권으로 끝내주는 BSC
- ▶감동깊게 읽었던 책 사마천의 사기
- ▶존경하는 인물 손정의 소프트뱅크 대표이사

있는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양 대표는 “잘나가는 기업이든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든 기업 내에 문제가 있기 마련”이라며 “컨설팅을 통해 프로세스 혁신을 하게 되면 낭비요인이 제거돼 30%정도의 원가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문제의 원인을 아는 기업이라 할 지라도 전체적인 인과관계를 파악하지 못해 애로를 겪는 회사가 많다”며 “문제 진단에서부터 문제를 해소하고 제대로 프로세스가 실행될 때까지 컨설팅을 계속하는 것이 CE컨설팅만의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기업의 생존과 도약을 위해서는 경영혁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양 대표는 “경영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부의 각종 지원책을 찾아 매년 전문가로부터 지도 내지는 컨설팅을 받는 것이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기업이 성장·발전·영속하기 위해서는 매년 기업의 건강도를 진단받고 그에 따른 혁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주는 ‘쿠폰제 컨설팅제도’, 노동부의 HRD(인적자원개발)진단평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인증제도 및 컨설팅 지원, 학습조직화 컨설팅 지원 등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양 대표는 주문했다.

컨설팅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고객의 궁금한 점에 대해 상세히 상담을 하면서 목표를 이루도록 도와주는 지식 서비스다. 중소기업도 경영컨설팅을 통해 영속기업으로의 성장이라는 목표를 이루도록 전략경영을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 ☎

박현정 기자 phj@gfeo.or.kr

“직업이 뭔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사업하는 사람인지, 봉사하는 사람인지...”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에서 김치 제조회사인 (주)늘푸른(www.kimchinara.co.kr)을 13년째 경영하고 있는 안상교(52) 사장의 삶은 그 자체가 봉사다. 김치를 만들기에 양로원과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김치를 전달하는 것은 기본이다. 7년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고 있다.

“하루에 김치 10t을 만들면 대한민국 농지 50만평을 책임지는 것과 같아요. 배추와 마늘, 고추, 생강, 파 등 부재료는 물론 이것을 생산하는 농가들의 생계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이런 마인드로 회사를 꾸리니 안 사장이 만드는 김치에 흔히 말하는 ‘중국산’이 들어갈 여지가 어디 있느냐.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회사가 망하는 길”이라면서도 국산을 고집한다. 물론 그런 고집이 있었기에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우수 농산물에만 인증하는 ‘G마크’를 받을 수 있었겠지만.

‘투철한 군인정신과 군인과의 관계는 사회적 책임과 사회지도층의 관계와 같다’. 안 사장의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에 대한 생각이다. 봉사는 이미 그의 생활의 일부가 되어 버렸다. 오래전에 ‘개인’ 차원을 넘어섰다.

(사회성시대마을회 회장이자 화성시사회단체협의회 회장)이었던 안 사장은 사회봉사활동을 조직적으로 왕성하게 전개하고 있다. 폐식용유를 이용한 저공해 빨래비누 생산, 고철 모으기, 휴경지를 이용한 배추·무·고추 등 경작,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위한 이동도서관 운영, 사랑의 집 고치기, 기분 좋은 버스정류장 만들기 등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천사친구’. 안 사장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랑실천운동이다. ARS 전화 한 통화(☎ 060-300-1479·2,000원)로 어려운 이웃들과 정을 나누는 운동이다. 지난해에만 2억원이 넘게 모금됐다. 올해 초부터는 ‘고시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팔탄면 구장리 새마을회관 부속건물에 각종 재료들과 반죽기, 발효기, 성형기, 오븐기 등을 갖춰놓고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뭉뚱’을 들여 빵을 굽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운동이다.

또 한 가지가 있다.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위치한 ‘화성시 장학관’이다. 서울에서 대학생활을 하는 화성시민 자녀들을 위한 기숙사다. 현재 80여명이 도움의 손길로 장학관에서 생활하며 학업에 매진하고 있다.

“기업이 잘 되고 있다면 그것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게 모르게 수많은 사회적 인프라들의 덕을

Tip on h

- ▶1957년 생 ▶별명 개구쟁이 ▶좌우명 필요한 사람이 되자 ▶자원봉사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돕겠다

취재협조 :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안상교 (주)늘푸른 대표이사
“주업(主業)이 헷갈려요,
사업인지 봉사인지...”

보고 있기 때문이죠.”

10점. 안 사장이 우리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현주소에 매기는 점수다. 그러나 그는 ‘가진 자’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말한다. 동기부여가 부족한 우리의 사회적 분위기에 원인이 있다는 말이다. 가진 자들의 선한 행위가 그들에게 ‘희열’을 주고, ‘명예로움’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쟁 낙오자들이 경쟁의 대열에 다시 합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직접 취득할 정도로 자원봉사에 중독된 안 사장이 꼽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제1 덕목이다.

“아마 남은 인생도 지금까지 해 온대로 하고 있겠지요. 적어도 가진 시간의 10%만큼은 봉사활동에 사용하고 싶어요.” 안 사장의 자원봉사 활동 시간은 지금도 켜켜거리며 움직이고 있다. ☎

김중근 기자 kjg21@gfeo.or.kr